

투데이 칼럼

비즈니스 화술

현대의 비즈니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바로 스피치이다. 남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과 풍부한 자질을 가지고도 화술 때문에 호감을 받지 못하고 주위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끝내 시대의 그늘 속에서 파묻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실력도 우수하지 못하고 자기도 부족하나 인간관계가 좋아서 주위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 성공한 사람 또한 많이 있다. 재벌들 중에서 상대수가 좋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삼아 성공의 계기를 잡았다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표현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법칙이 있을 정도로 자기표현의 수단인 화술이 그 어느 자산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자신의 능력을 주위사람들에게 그리고 고객에게 올바르게 표현하는 비결을 살려보기로 한다.

첫째, 신념에 찬 스피치를 구사하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믿게 설득할 수 있다면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현대조선 설립 당시 故정주영 회장이 은행자금을 얻기 위해 필요했던 추천서를 받을 때 오백원짜리를 거북선 그림을 책상에 놓고 신념 있게 설득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길은 먼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저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하고 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제압할만한 신념에 찬 태도와 말 즉 자신만만한 언행이다.

이런 것을 '선언효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호연장담 선언'의 효과이다.

둘째,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말한다.

일본의 한 경영 연구소는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사업자가 실패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판단력의 결여 때문이며, 이것은 여유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발표했다.

남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인생을 한발 뒤로 물러나 여유 있게 바라보는 태도 또한 중요한 일이다.

화가의 원근과 구도를 맞추기 위해 한발 뒤로 물러나 캔버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자칫 여유를 잃고 방황할 때가 많은데 조금씩 때문에 또는 초조감 때문에 일

을 그르치는 예는 허다하다. 그런 때일수록 말 한마디라도 여유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밝고 긍정적인 화술을 구사하라.

사업하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날씨, 잘 될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응! 잘 될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은가?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향했을 때 부하들은 추위에 굶주림에 시달려 원정을 중지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나폴레옹은 여유 있게 힘차게 말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알프스 장벽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저 너머 광활한 로마가 보인다" 이 말이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군사는 그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넷째, 포용력 있는 화술을 익혀야 한다.

"인간은 고정관념의 노예" 라

는 말이 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그 사람이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남의 이견을 들을 때는 듣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타협의 달인이 되는 것이 비즈니스화술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편견적인 발언은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설령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합부로 표현하여 화를 자초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이미지를 파는 화술을 개발하라.

상대에게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호감을 주고 인상 깊게 처신하는 것은 질 높은 상품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여섯째, 성공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라.

실패했을 경우일수록 더욱 성공자처럼 태연한 모습의 담력과 화술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첫인상이 중요한 시대이다.

나답게 스스로 신인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공자처럼 말투를 표현하고 살자.

성공자처럼 말하면 머지않아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올바른 스피치인이 되자. 비즈니스 사회에는 신뢰, 당당함, 인간관계 등 요소가 중요하니 오늘부터 미루지 말고 단일하게 생각하지 말자.

기고문

운전 중 전방 도로상황 예의주시해야

며칠 전에 관내에서 도로 우측에 화물트럭을 주차해 놓고 차원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을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량이 화물트럭 뒤 적재함과 사람을 충돌하여 작업 중 이던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원인을 확인해 보니 충돌한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 바다에 떨어진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전방 상황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운전자는 운전할 때에 사고예방을 위해 전방의 도로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운전하여 잠재적인 위험

이나 장애물에 주의를 기울여 돌발 상황 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전방을 주시한다는 것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어운전의 기본이다.

단순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 원(승용기준)이 부과된다.

요즘 너무나 일반화되어있는 전방주시 태만으로는 휴대폰 사용인데 휴대폰 사용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8만



전 군 수  
전안경철서 마량파출소 소장

원에 처해질 수 있는데 처벌보다도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급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몇 년 전 관내 터널내에서 1톤 화

물차가 경운기를 충돌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원인이 차량 운전자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다가 전방에 가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였다.

또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는 운전 중 흡연을 하기위해 라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방 도로상황에서 눈을 떼 수 있어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메이크업 수정, 식사나 간식 먹기, 음주 또는 운전 방해가 되는 기타 활동을 하는 것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의 도로 상황에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피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사설

스카우트 대원들의 귀국길

새만금 스카우트 캠프에 참가했던 세계 청소년들이 속속 귀국길에 올랐다. 날씨도 힘들었고, 미흡한 준비로 참가자들이 특히 초반에 고생이 많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2일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캠프 스카우트 대원 67개국 약 6000명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밤 11시에도 1500여 명이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12일 하루만 7700여 명, 15일까지는 모두 3만 4천여 명의 대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일부 대원들은 조금 더 남아 우리나라 관광을 이어갔다.

특별 출국 지원 대책으로 캠프 버리 참가자 전용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 검색대가 운영되었다. 출국 지원 요원도 60여 명 배치됐다.

하지만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로 여행객까지 몰린 상황에서 다른 여행객 출국 절차가 평소보다 지체돼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대회에 참가했던 상당수의 대원들은 하나같이

이 밝은 표정이었다.

실제로 대원들은 아쉽지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캠프 대회 자체는 훌륭하지 않았지만 참가한 모든 대원들은 좋은 경험이라고 느꼈을 거라고 말했다.

대원들은 공항에서 사진을 찍고 기념품도 받으며 한국에서 마지막 추억을 남겼다.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쉬움은 남은 일본 대원들은 직접 만든 종이 조형물을 머물렀던 지역에 선물하기도 했다.

커다란 오명을 남긴 세계 캠프 국제대회는 아슬아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제 캠프 버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은 대회를 마무리 한 뒤 따져야 할 것이다.

일단 대한민국에 온 세계 각국의 대원들이 최소한의 호감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무쪼록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란다.

테마주 일확천금의 꿈

초전도체가 최근 증시에서는 단연 화제였다. 그 전에 이차전지였다. 이렇게 특정 주제와 관련해 한 번에 시세가 바뀌는 주식들을 '테마주'라고 한다.

테마주 열풍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초전도체가 쾨지는 몰라도 초전도체 '관련주'가 쾨지는 훨씬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주식이 모두 올랐다.

2주 수익률이 40%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래프를 보면, 3천 원 쯤 하던 주가가 1만 5천 원 넘게 뛰어올랐다. 하지만 '성공 여부가 의심된다.'는 소식이 금세 반값 이하로 툭 떨어졌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진짜로 상온 초전도체 개발과 관계가 있는 회사들인지 궁금하다. 어떤 회사는 "상온 초전도체 개발한 곳과 교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단지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올랐다.

테마주 회사들의 일부 임원이 최고 10억 원대 주식을 팔아치웠다. 내부자들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올랐다는 뜻이다. 상온 초전도체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심 보도도 나왔다.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테마주만 묶어서 투자하는 테마형 ETF라는 편드가 있다. 1년 뒤 주식시장 평균과 비교해보니 오히려 수익률이 5.7% 낮았다.

테마주 폭등의 원인으로 코로나 19 사태에 쌓인 돈을 꼽는다. 당시 소비가 줄면서 100조 원 이상의 저축이 가계에 쌓인 것이다. 이 돈은 빛 값인데 쓰이기보다 주식이나 예금으로 보유 중이다.

실제로 GDP 대비 가계 부채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풀린 돈이 테마주 투자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장차 이 돈이 부동산에 몰려서 아파트 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